

대한민국 국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8734
----------	------

발의연월일 : 2025. 3. 7.

발 의 자 : 이해민 · 정춘생 · 김재원

김준형 · 추미애 · 김용만

신장식 · 조인철 · 손명수

정동영 · 서왕진 · 김선민

강경숙 의원(13인)

주 문

평화의 소녀상은 2011년 12월 14일, 1,000회를 맞이한 수요시위를 기념하여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건립되었다. 이후 평화의 소녀상은 전쟁과 폭력을 배제하고 평화와 인권의 상징물로 자리했고, 미국, 독일, 호주, 필리핀,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에 건립되었다.

2018년 12월 14일,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을 도의회 내에 건립하여, 일본군 전시 성폭력 피해자를 기리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인류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보였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대의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일본군 전시 성폭력 피해의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정의를 실현할 더 큰 책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국회 경내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철

거 위기에 직면한 바 있다. 2020년 9월,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설치 직후부터 일본 정부의 꾸준한 철거 압박을 받아왔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저지하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 국회 독일 방문단’을 구성해 현지를 직접 찾아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 역사의 진실이 왜곡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바, 대한민국 국회가 직접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설 필요가 있다.

이에 국회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 경내에 평화의 소녀상을 조속히 건립할 것을 촉구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국회로 거듭날 것을 결의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평화의 소녀상이 전쟁과 폭력으로 희생된 피해자를 기리고, 국제사회에 일본군 전시 성폭력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데 필요한 조사와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 된 평화의 소녀상이 전 세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 평화의 소녀상이 지닌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제안이유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전시 성폭력 피해의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전쟁과 폭력으로 인한 고통 받은 여성들의 인권을 기리는 상징물임. 현재 평화의 소녀상은 단순한 조형물을 넘어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전세계에서 인식되고 있음.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일본군 전시 성폭력 피해의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정의를 실현할 책임이 있음. 또한,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군대라는 폭력을 동원한 국회 침탈을 겪었음. 이때 국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함.

이에 대한민국 국회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촉구하고,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확산시키며, 관련 입법과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평화와 인권 가치지향적인 국회로 거듭나고자 함.